



사단법인 | 국제기아·질병·문맹 퇴치기구

한국제이티에스

Join Together Society <http://www.jts.or.kr>



표지사진 : JTS가 동게스와리 마을에 지원한 핸드펌프를 이용하여 목욕하고 있는 아이들의 천진스런 모습

JTS 통권 54호 2005년 7·8월

펴낸날 : 2005. 7. 1

펴낸이 : 법 료

만든이 : 김경희

도운이 : 김애경, 최양희, 서동우, 최정연
이미경, 유명규, 김순연, 정미숙
장성호, 김옥희, 심연옥, 고정희
양윤덕

펴냄터 : (사)한국제이티에스

주 소 : 137-875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정도회관 2층

전 화 : (02)587-8995, 587-8756

전 송 : (02)587-8998

E-mail : jts@jts.or.kr

인터넷 : www.jts.or.kr

디자인·제작 : 신명기획 ☎02)2273-6128

특집 _ 인도 및 아시아 어린이 돕기 캠페인

4 오늘은 어린이 손을 잡아주세요

인도 동게스와리 소식

8 인도 수자타의 부처님 오신날

지금 북한에선

11 왜 지금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가?

필리핀소식

14 먼 곳까지 가라

후원의 소리

17 소외된 이들을 위해 살다 간 언니

따뜻한 이웃

20 모금을 통한 마음공부

활동보고 및 안내

23 인도지원사업

북한지원사업

국내소식

물품후원

26 라진·선봉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8 통일돼지저금통 후원금 및 거리모금 현황

30 신규회원(개인, 단체) 명단

오늘은 어린이 손을 잡아주세요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인도, 북한 및 제3세계 어린이를 돕기 위해 전국 10개 지역, 30개 장소에서 426명이 모여 14,956,420원을 모금했다. 3대가 함께 나온 가족, 초등학생부터 할머니까지 모두가 함께한 어린이날 모금 현장의 생생한 소감과 사진들을 모아보았다. 우리 어린이들의 밝은 웃음과 행복이 북한 그리고 제3세계의 어린이들에게까지 두루 퍼지기를 바라며 작은 정성을 모아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드린다.

지역명	행사장소	참가인원	모금액	지역명	행사장소	참가인원	모금액
서울	5	173	5,626,940	청주	3	20	1,024,080
동래	2	37	1,046,790	마산	8	25	1,368,750
해운대	3	57	1,658,690	울산	1	43	639,030
대전	2	15	1,158,540	제천	1	20	211,160
대구	4	32	2,045,070	광주	1	4	177,370

서울

명동은 언제나처럼 젊은이들이 활기차게 다니고 있었다. 어린이 날이라 어린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구경을 나와 고사리 손으로 모금함에 돈을 넣어 주었다.

점심은 거리에서 각자 싸온 도시락을 나누어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해 했는지...생각해보라. 명동 변화가 한복판에서 줄지어 식사하는 모습을...



아주 어린 꼬마 아이들이 어 깨띠를 하고 모금을 하는 모습은 너무나 귀여웠다. 이렇게 우린 하나가 되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보았다.

- 최대원심

모금을 해주는 부모의 자녀
이건 안해주는 부모의 자녀
건 모두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
이다. 그래서 인도나 북한의 아이들도 다 우리 아이들처럼 소중하고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 최현주

내가 용기를 내는 만큼 굶주리는 많은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가끔 사기라는 사람, 욕하거나 의심하는 사람들 때문에 조금 화도 나고 힘들었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니 더 힘이 나서 나도 말이 술술 나온 것 같다.

- 방선영(대왕중학교 1학년)

대구

오늘은 전국적으로 특별한 날. 굶는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되는 날이었다. 일찍 서둘러 점심을 챙겨 모금 장소인 월드컵 경기장으로 갔다. 배가 고프면 혹시라도 모금하는데 힘이 빠질새라 든든하게 먹고 모금에 온 힘을 쏟았다.



오늘의 명심문. '앗!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를 새기며 함께한 분들의 새로운 기운을 받아 굶주리는 아이들의 대단한 엄마, 아빠가 되어 본 날이었다.

- 여해심

부산 해운대

학생들과 함께 한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나온 분들 모두 참 보기 좋았다.

비가 온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모금이 다 끝나고 내려줘서 고맙고, 이른 더위에도 열심히 하신 여러분들께 정말 고맙다.

이렇게 보람있게 보낸 하루도 없다며 다음에도 자주 하지는 말에 힘이 난다.



부산 동래

부산역, 광안리, 부산교육대학 3군데에서 모금을 진행했다. 특히 부산교육대학은 전교조와 교대총학생회가 주최한 어린이날 행사가 열려 많은 사람들이 JTS 사진을 보고 갔다. 처음 모금에 참가한 사람이 많아서 더 재미있었다.



마산

모금에 경험이 많으신 총무님께서 앉아 계신 분들의 입장까지 고려하여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고 한분 한분에게 JTS를 알리고 모금하라며 시현해 주셔서 머뭇거리없이 모금에 집중할 수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가족들과 맛난 음식 먹으며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어려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산교육을 하고 가신 분들 그리고 귀여운 우리 친구들에게 너무도 고맙다.



아이들을 돕는다고 먹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해서 속상하지 않았을까?



서로 마음 따뜻해지는 보람 되고 의미있는 하루였다.

-김애자

울산

나는 어린이날에 한국JTS에서 하는 아시아지역 어린이들 돕기 운동을 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잘 안 나오다가 나중에 밥을 먹고 났더니 목소리가 아주 잘 나왔다.



어린이날에 그곳에 안 갔더라면 '제3세계 어린이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살 만은 하겠지?' 라고만 생각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운동을 한 덕



에 나는 제3세계 어린이들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그 어린이들을 조금이라도 더 돕겠다고 마음먹었다.

-김 창 욱 (울산 양정초등 6년)



인도 수자타의 부처님 오신날

강성원 | 인도JTS 자원봉사자(마을개발)

올해의 부처님 오신 날은 이 곳 인도의 보드가야에서 보냈다. 이날은 수자타 아카데미 식구들과 함께하며 나의 1년간 자원봉사를 마무리하는 뜻 깊은 날이기도 했다.

인도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이 한국과 달라서 5월 26일이었다. 이곳은 계절적으로는 건기로 50도가 계속되는 무더위이고, 학교는 학기 중반 시험이라 바쁜 시기였다. 1년중 학교 개교 기념일 다음으로 큰 행사인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가 한 달여 전부터 시작되었다.

태권도반, 노래반, 무용반 아이들은 기존에 배운 기량들을 선보이기 위해 공연 연습을 했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연등을 아이들이 직접 만들었다. 9, 10학년 아이들이 연꽃을 하나하나 정성껏 붙여 만들었다. 처음에는 잘 할 수 있을 거라 쉽게 생각했는데, 듬성듬성 속이 보이고, 잎들이 구겨지며, 다시 붙이고, 다시 만들어 갔다. 하나를 만드는데 거의 1시간이 걸렸다. 조금은 서툴렀지만 연잎으로 곱게 만들어진 등이

범당안에 하나 둘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도 나도 며칠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되어서 기뻐다. 처음이라 미숙한 부분도 있었지만 학생들 스스로 만들고 준비했다는데 더욱 의미가 있었고, 해가 갈수록 멋진 등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니 더욱 예뻐 보였다.

그동안 이곳에서는 매주 토요일 부처님 일생을 공부했는데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해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연극으로 꾸며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수자타 아카데미의 학년별 학생, YSS학생, TS학생, 스텝, 마울리더 등 10여 그룹이 참가해 열띤 예선전이 치러졌다. 그룹이 많은 만큼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다. 살인자 양굴리말라의 이야기, 똥꾼 니이다이, 아쇼카 대왕 이야기. 그 중 7학년이 준비한 것은 전생담에 싯타르타가 비둘기를 구해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연극이었다. 재미있는 것은 비둘기 대신 진짜 오리를 준비해서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기발한 아이디어와 뛰



부처님의 일생을 연극으로 만들어 공연하고 있는 수자타 아카데미 학생들

어난 연기에 몰두하다 보니 더운줄도 몰랐다. 머리로만 알고, 얘기로만 들었던 부처님의 이야기를 직접 해 봄으로써 그분의 삶이 더욱 가까이 다가갔을 것이다. 예선에서 최종 3팀이 선발되었다. 아쉽게도 오리를 준비한 7학년은 떨어졌지만 다른 팀 또한 경쟁한 연기력을 가지고 있었다. 선발된 3팀의 공연은 부처님 오신날 행사 때 무대에 올려졌다.

부처님 오신날 하루 전날 강당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1000명의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노래, 발원식, 보시까지... 이날 보시금은 1루피, 0.5루

피가 하나하나 모여 809루피가 모아졌다. 저학년 학생들까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남을 위해 보시하는 모습을 보며 보시가 꼭 가진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임을 느꼈다. 향상 받기만 하던 그들이 누군가를 위해 베풀기로 해서 자기도 남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이 경험은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기꺼이 작은 돈이라도 낼 수 있는 마음의 씨앗이 될 것이다.

오후엔 다음날 보드가야에서 있을 행진에 대비해서 예행연습을 했다.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소품들이 동원되었다. 코끼리



평화행진의 선두에 선 JTS의 하얀코끼리

상, 어린부터 상, 탑 그리고 만장들과 각 마
을의 피켓까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열심히 했다.

부처님 오신날 당일은 새벽부터 사람들
이 수자타 학교에 모여 행렬에 쓸 여러 가
지 소품들을 버스에 싣고 보드가야로 향했
다. 코끼리와 어린부터 상, 탑은 전날 먼저
보드가야에 실어 보냈다. 버스에서 내려 줄
을 서서 만장과 연등을 들고 행진을 했다.
코끼리 상과 붓다 상이 들어오면서 행렬대
가 제법 대오를 갖추었다. 행진은 대탑까지
3km정도 이어졌다. 대오는 화려하지는 않

았지만 정렬된 모습과 불거리로 주위 사람
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래서인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운 날씨 속에서도 중간 중간
물을 마시며 힘든 기색없이 힘차게 걸어
갔다. 대탑에 도착해서는 그곳에 준비된 행
사에 참가했다. 많은 단체와 스님들이 참가
해서 행사를 빛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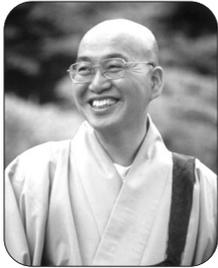
행사가 끝나고 보드가야에서 돌아오면서
'이런 행사들이 이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
을까' 생각해 보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금 이곳, 이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실천
해야 할까?' '불가촉 천민들이나 이들은 부처
님을 어떤 존재로 받아들일까?'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고통 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이 비
록 불가촉 천민이지만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자기 스
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단순히 도
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행사로 부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
가를 다시 한 번 마음속에 새겨보며 괴로움
이 없는 세상, 자유로운 세상, 모두가 행복
해지는 세상을 꿈꾸어본다.

왜 지금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가?

법륜스님 | JTS 이사장



2005년 6월 어느 날, 강원도 최전선 근처에서 인민군 복장의 한 북한군이 인군 주민의 신고로 붙잡혔다는 신문 기사를 읽었다. 강을 건너 철조망 뚫고 온 그의 탈북 동기는 힘들고 배가 고파서란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마저 배고픔을 겪고 있는 북한의 현실이 97년 당시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북핵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지 지난 5월에 있었던 JTS 이사장이신 법륜스님의 북핵관련 특강의 일부를 실어 본다.

한국JTS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해 온지 벌써 9년째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만큼하면 됐지 않은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9년 이상을 지원해 왔지만, 아직도 북한의 상황은 어렵습니다. 제2의 고난의 행군을 해야 할 만큼 상황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2~3년간 국제사회의 지원이 끊기면서 오히려 지난 97~98년 보다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북핵 문제로 한국 국민들은 서로의 의견을 달리하면서 분열되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차 이 상황을 외면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북한이 지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북한에 대해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가? 그것은 북한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은 물론, 지금의 지원이 나중에 우리가 지불해야 할 통일비용을 줄이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안전과 이 땅 한반도의 평화

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
니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끊어지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 압박을 가하
면 가할수록 최대 피해자는 바로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대
피해자들이 위협의 본질을 제대
로 못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
다.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어떠한
경제적 지원이라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하고 그것이 이 땅의 평
화와 위함을 줄이는데 열 배, 백
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새겨야 할
것입니다. 지금 북한을 위해 백만
원씩 내라고 하면 ‘그렇게나 많은
돈을... 우리도 어려운데...’ 하
며 아우성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훨씬 효율적인 것입
니다.

아울러 남북간 대화와 교류 협력
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합니다. 남북
한이 대화를 하는데 국내여론이 통
일이 되면 대화를 하기가 훨씬 쉽
습니다. 남북간에 교류와 협력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시대적 대
세입니다.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
건 또 어떤 조건이건 관계없이 고



지난 5월 북한 무산근처 지역에서 농사짓는 모습



지난 5월 함경북도 온성군 논 1,800정보에 비료 720톤을 지원하면서



비료를 실은 컨테이너를 배로 옮겨 실는 모습



부산항에서 비료를 선적한 후 나진항으로 출항을 기다리고 있다.

통발는 사람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보편적인 대세입니다. 남북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긴장 고조 상태는 실제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대규모로 확대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교류와 협력은 북한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남한에도 이익이 됩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어차피 외국 자본을 들여와야 하고, 한국은 싼 노동력이 필요하고 또 자원도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북한의 자원과 인력, 남한의 자본과 기술, 경영 노하우 등이 교류협력이 되면 한 쪽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남한은 폐기 처분할 배가 만 대라면 북한은 배가 없어서 고기를 못 잡고 있고, 중국에서 배를 사오자니 비싼 값을 치러야 할 형편입니다. 북한은 배를 새로 사려면 돈을 들여야 하고, 우리는 그 배를 처분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이럴때 남한에서는 북한에 배를 지원하고 북한은 그 배로 고기를 잡아 남한에서 그 고기를 사오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빈그릇 운동의 의미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로 엄청난 비용을 지출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들었던 비용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아이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남북한의 문제도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얼마든지 함께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북한은 내 나라, 우리가 건설하자는 것은 경제적 구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민족의 이익을 위해 어떤 것이 최선인지, 현재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가슴으로 아픔을 함께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북한은 지난 60년 동안 자주를 지킨다고 오직 전쟁 준비만을 하면서 궁핍과, 인권보호도 없이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점을 가슴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통일은 한걸음 더 다가 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먼 곳까지 가라

페이코 자판타 | 필리핀 민다나오 JTS 사업장 자원봉사자

페이코씨는 여름학기 인턴십으로 민다나오 JTS에서 자원봉사를 하였다. 그는 필리핀 카가안데오로 시에 있는 세비어 대학 4학년에 재학중이며, 지도교수인 트렐씨는 필리핀 JTS 활동가이다.

“네 시선이 미치는 먼 곳까지 가라. 그 곳에 닿으면, 더 먼 곳이 보이리라!”

– Alberto V. Ampil 목사(S.J.)

우리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월요 아침 조회 훈화시간을 끝낼 때 우리에게 해주시던 말씀이다. 나는 이 말을 두고 고민하며 문자 그대로, 혹은 은유적으로 이해한 여러 가지 해석을 생각해내곤 했다. 잊고 있던 이 말을 다시 떠올리게 된 것은 최근 JTS의 탈라각 특수학교 기숙사 건축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하고 나서였다. 여러 인터뷰를 하는 도중 나는 알프레드를 만났다.

알프레드는 부키드논주 탈라각시의 특수교육(SPED)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18살의 시각 장애 학생이다.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애는 시각장애 뿐이었다. 학생들은 작은 그룹이 간신히 수업을 받을 수 있을만한 정도의 교실을 사용했다.

알프레드는 끼니를 거르고 학교에 갈 때가 많았다. 아침은 물론이고, 때로는 점심도 먹을 수 없었다. 등하교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도 어려웠고, 교통비도 큰 부담이었다. 게다가 집에서 특수학교가 있는 곳까지는 6km나 되었다. 학교에 가려면 알프레드는 가파른 고개를 넘고 위험한 다리를 건너야 했다. 하루는 학교 가는 길에 짧은 다리를 건너야 했는데, 그만 발을 헛디더 진흙탕 속에 빠지고 말았다. 그는 이 사고로 한쪽 팔이 탈골되었다. 그 때를 회상하며 그는 이렇게 말하

고는 웃었다. "라요 만 굿, 비킬 양 다란(갈 길은 멀고 도로는 험하죠)." 매일 수업을 받으러 갈 때마다 그는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처음 학교에 등록한 3명의 학생 중에서 알프레드는 점자를 읽는 법을 처음으로 배웠다. 우리같은 비장애인들이라면 불평하며 거절했을만한 일도, 장애를 가진 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을 하며 그는 즐겁게 말한다. "림표 디니, 림표 닷토!(여기 치우자, 전부 청소하자)" 휴게실과 교실 바닥 쓸고 닦기, 설거지, 물 떠오기, 화분에 물주기, 밥하기, 기타 온갖 종류의 일들이 알프레드에게는 '공원 산책'처럼 쉽고 즐겁다. 그는 또한 기타도 치고, 피아노를 배우며, 플룻 연주에도 도전하고 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우린 목욕도 혼자 할 수 있다구요."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 수가 늘었고, 수업을 위해 더 큰 교실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수학교 교사인 다고요 선생님이 해준 얘기로는, 아이들은 원만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교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원하던 것을 얻었다.

JTS 자원봉사자, 교육부 탈락각지구, 지방정부, PTCA(학부모회)교사들이 만나 어려운 점을 털어놓고 필요한 것들을 얘기했다. 또한 어떤 지원이 가능하며 지역 사회의 역할로는 어떤 것들이 가능할지도 논의했다.

학생들은 시멘트 작업에 필요한 자갈을 운반했다. 학부모들은 주변 청소를 도왔으며, 작업중에 먹을 간식거리와 새참도 가져다 주었다. 마침내 교실 3개를 가진 학교가 완공되었으며, 남여 학생을 따로 수용하는 기숙사도 이어서 완성된다. JTS는 기아, 질병, 문맹퇴치를 목표로 하는 한국 시민단체이다. JTS는 심각한 억압을 받는 지역이나 오지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으며, 특수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수학교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JTS 이사장인 법륜 스님은 평화와 국제 교류에 대한 공로로 2002년에 막사이사이 상을 수상하였다. JTS는 필요한 모든 건축 자재를 제공했으며, 지방정부는 노무자를 파견해줬다.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알프레드는 최근에 특수학교 바로 옆에 있는 담임 선생



특수학교 개원식에서 장애우들이 합창하는 모습

님의 아버지가 사는 집으로 이사했다. 이제 기숙사는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곧 화장실, 침실, 부엌 등 모든 시설을 완벽히 갖추고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숙사가 완공되고 나면, 학생들은 더이상 통학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을 것이다.

공부를 결심한 후, 앞날이 멀고 불투명해 보여도 알프레드는 계속 전진했다. 정말로 그는 멀리까지 갔다. '그가 닿을 수 있는 곳까지.' 그리고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친구들과 새로운 가능성과 그리고 실현하고픈 더 많은 꿈들을 보았다. 그는 말한다.

"우리는 지금 너무 좋아요. 이제는 함께 모여서 공부할 수 있고, 힘들 때는 서로 도울 수도 있고, 배운 걸 함께 나눌 수도 있어요."

알프레드와 이 학생들은 내게 진정한 학생이 가져야 할 태도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일깨워준다. 이 도시에서 우리는 여러 일들을 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다. 그것은 축복이며 큰 행운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사는 동안, 우리는 먼 곳 끝까지 가야한다.



소외된 이들을 위해 살다 간 언니



(젊은 시절 故 이옥지 님의 모습)

사회학 박사였던 故 이옥지님은 JTS 회원으로서 꾸준히 북한 어린이를 도와오다 지난 4월 8일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나며 북한과 인도 및 제3세계의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고 JTS에 1000만원을 기탁하는 유언을 남겼다. 병마와 싸우면서 많은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음을 내신 높은 뜻을 기리며 고개숙여 고인의 명복을 빈다. 고인의 아름답고 숭고한 삶을 동생인 이순지님께 들어본다.

먼저 저희 언니 이옥지 박사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떠난 언니에 대해서 뭔가를 이야기 한다는 것이 좀 쑥스럽고 또 언니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망설여지고 조심스럽지만 동생으로서 언니를 떠나 보낸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잠시 언니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으로 언니에 대해서 몇자 적어 보려합니다.

저희 언니는 지난 4월 8일 약 5년간의 유방암 투병 끝에 끝내 회생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학이 눈부시게 발달한 지금 시대에 53년이라는 짧은 생도 다 채우지 못하고 떠난 언니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려옵니다. 그 슬픔과 아쉬움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저의 언니는 평생을 독신으로 공부만 하다가 세상을 떠났기에 그

슬픔과 한은 저희 가족 모두의 가슴에 뺄 수 없는 못이 되어 박혀 있습니다.

언니는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를 받고 1994년 한국에 돌아 왔습니다. 언니의 전공 분야가 사회학(특히 노동 사회학)이어서 인지 언니는 평생 한국의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각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각별 하였습니다.

언니는 세상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엄격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동생인 제가 보기에도 지나칠 정도여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좋은 옷 한번을 사 입지 않았고, 좋은 음식도 또한 만들어서 먹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언니는 많지 않은 돈을 쪼개어서 이곳 저곳 조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다달이 후원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도 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단 한번도 그런 이야기를 주위에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또한 언니는 마음이 소녀같이 맑고 순수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 해서 언니가 평소에 그린 많은 그림들이 유품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평생을 사는 동안 누구에게 나쁜 말 한마디 한 적이 없고, 혹시 마음에 상처를 받는 말을 들었어도 그것을 입 밖에 내어서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요.

자신이 투병생활을 하면서 건강이 아주 좋지 않을 때 미군 장갑차에 치인 여중생 촛불집회에 참석해서 그 아픔을 함께 한 것도 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일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자신의 병에 대해서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렇게 지독한 암과 싸우면서도 단 한번도 동생인 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꼭 남의 얘기 하듯이 자기의 상태를 이야기 하곤 했습니다. 몇 년간 투병 생활을 할 때에도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고 그 어려운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를 혼자서 다 감당해 내었습니다.

언니는 참으로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고 삶에 대한 애착 또한 무척 강했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매사에 성실하였고 미련스러울 정도로 모든 일을 원칙대로 해 나갔습니다.

병원에서 만족할 만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족들이 너무나 걱정이 되고 안타까워서 병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이런 저런 좋다는 치료도 해 보기를 권했지만 언니는 오로지 자신을 치료해 주던 의사선생님과 병원을 믿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병과 철저히 싸웠습니다. 혼자서 암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음식 하나하나에도 무척 신경을 쓰고 조심을 했습니다. 언니가 자신의 병에 대해서 걸으려는 참으로 강하고 무심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도 삶을 사랑했고 또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마음이 한없이 여리고 티없이 맑고 고왔습시다. 그렇지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은 절대로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았고, 또 그래서 언니는 항상 외롭게 살았습니다. 독신이기에 오랜 투병기간 옆에서 힘이 되어 주는 사람도 없었고 가끔 가족과 친구들이 도움을 줄 때도 있었지만 언니는 그것마저도 남에게 피해를 줄까봐 되도록이면 사양을 했습니다.

언니가 가고 없는 지금 언니에게 좀 더 힘이 되어 주지 못한 것이 제 가슴에 지울 수 없는 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언니의 49재도 끝이났습니다. 이제는 언니가 좋은 곳에 다시 태어나서 부디 이승에서 못다한 것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더 이상 아픔도 외로움도 없이 말입니다.

모금을 통한 마음공부

성준기 | SBS 프로덕션 PD

지난 5월 5일 명동에서 있었던 어린이날 모금 캠페인에서 마이크를 들고 북한, 인도 및 제3세계 어린이 돕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성준기 부부. 성준기님은 현재 정토회 내 방송인 모임 '길벗' 회원이다.



TV제작에 종사하는 작가, PD, 연기자 중에 깨달음의 장에 다녀온 사람들이 모여 자기 삶을 일상적으로 되돌아 봄으로써 괴로움이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대중매체 종사자들이 이웃과 세상에 잘 쓰이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목표를 걸고 함께 정진을 시작한 것은 작년 11월 1일의 일이다.

이렇게 시작된 정진은 이제 8개월째 접어들고 있지만 아무도 그만두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정진은 평생 계속되어야 한다며 초발심을 놓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 정진의 길을 함께 가는 방송인들을 '길벗'이라 부르고 있다.

사실 길벗이 JTS와 거리모금을 시작한 것은 단지 수행의 여러 가지 과제 중 하나였다. 따라서 모금활동에 대한 별다른 사전 지식이나 정신적인 무장 없이 참가했고 그만큼 우리에게 커다란 정서적 충격과 자각을 가져다주었다. 남 앞에 고개 숙여본 적이 별



로 없는 방송인들이 돈 통을 들고 낯선 사람들에게 다가가 돈을 내 줄 것을 요청하는 일은 많은 용기와 인내심이 필요한 일이었다.

첫 모금활동은 명동에서 이루어졌고 이날의 모금 주제는 '아시아지역 지진해일 피해자 돕기' 였다. 이날 모금에 참가한 길벗들은 모금 자체보다 지금까지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고 살아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 “난 정말 화가 났다. 내 말을 못들은 척 무시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이 저절로 나왔다. 그들의 뒤통수에 대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 “내가 평소에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외면하고 지나쳤던 걸인들이 떠올랐다. 아마 그들을 대하는 내 표정이 오늘 나를 외면하고 지나간 사람들의 표정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 “처음엔 화가 났고 차츰 슬퍼졌다. 그러다가 누군가 처음으로 돈을 주자 엄청난 기쁨과 용기가 솟아났다.”
-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내가 배우가 된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얼굴을 안다는 이유만으로 선뜻 모금에 동참해 주는 사람들을 보며 내 직업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나 역시 내 말을 들으려고도, 나와 눈을 마주치려고도 하지 않고 스쳐 지나가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심한 모멸감도 느꼈고 한편으로 씁쓸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을 탓할 자격이 내겐 없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나도 그들처럼 살아오지 않았는가? 한 시간 내내 땀을 뻘뻘 흘리며 모금했는데도 모금액은 만원 남짓에 불과했다. 이날 모금활동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귀중한 깨우침을 주었다. 앞으로는 누군가 내게 말을 걸때 일단 그의 눈을 바라봐 주자. 하다못해 광고 전단지를 나눠 주더라도 일단 받아서 관심을 표명해주자. 방송국 앞에서 혼자 피켓 들고 일인 시위하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자. 누군가 내 말을 들어달라고 외칠 때 최소한 그들의 말을 들어주기라도



하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너무 이웃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었다.

인사동에서 있었던 북한 어린이 돕기 모금은 또 다른 의미에서 공부가 되었다.

거리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명동에서의 모금보다는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편이었지만 북한을 돕는다는 말에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날 우리민족이 처해 있는 분단현실을 뼈아프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 “남한 어린이나 돕자구! 김정일 좋은 일 그만 시키고!”
- “핵무기부터 제거하라 그래, 그럼 도와줄게!”
- “이거 혹시 군인들 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적행위에 해당돼요!”

단돈 천원이면 북한의 굶주린 아기를 일주일간 먹일 수 있다는 우리의 호소는 냉전 이데올로기 아래 번번히 묵살되었고 그 뿌리 깊은 적대의식은 민족의 앞날에 대한 우려와 반성으로 이어졌다.

지난 어린이날 모금은 JTS 관계자들과 함께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 길벗들도 명동에서 그 대열에 참여했다. 이제 우리 길벗들도 모금활동이나 거리 캠페인에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겼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미소로 다가가고, 피하면 따라 붙고, 거절당하더라도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모금활동 자체를 즐기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빈그릇 운동 홍보대사로도 활약중인 배종옥씨는 그날 모금활동 후 나누기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나한테 모금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 난 직업을 바꾸고 싶어. 전문 모금활동가로...”

길벗들은 일상에서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두 달에 한 번씩은 모금활동에 참여할 계획을 세웠다. 물론 우리 정진의 일환이고 우리 자신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서다. 하지만 추측컨대 이 일은 우리가 이웃과 세상에 잘 쓰이는 그날까지 계속될 지도 모르겠다.

인도지원사업

●수자타아카데미 방학

인도에서 가장 더운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학교와 유치원은 여름방학에 들어갔다.

●5월 23일 부처님 오신 날 평화행진 참여



보드가야 국제 사원들이 참여한 세계평화를 위한 평화행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5학년부부터 총 2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수자타 아카데미의 아기 부처님 장식, 탑 장식품, 하얀 꼬끼리 장식 중에서 하얀 꼬끼리가 전체 행렬

의 맨 선두를 장식하는 영광을 누렸다.

아울러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학생, 스텝, 어머니 회원 등 총 3100여명에게 선물로 옷을 1점씩 나누어 주었다.

●여름 워크캠프 진행

여름방학을 맞은 수자타 아카데미 상급생, 유치원 교사 등은 6월 22일~29일 1주일간 워크캠프를 가졌다. 오전에는 학교 밖 마을에서 마을 배수로 청소, 플랫폼 만들기, 유치원 벽화 그리기등 육체 노동을 하고 오후에는 교육, 보건위생, 마음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수자타 아카데미 오픈강당 공사



수자타 아카데미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오픈강당을 건축중에 있다. 기존의 강당이 병원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어서 좁고 학교건물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

사용하기에 불편했었다. 수자타아카데미 학생들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새로운 강당을 짓기로 결정하고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이번에 지어지는 강당은 약 3,000명 수용규모로 객석과 무대, 분장실, 소품창고 등을 갖춰 공연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점심시간에는 학생들의 식당으로 사용하고, 우기와 더운시기에는 조희장소로 사용될 예정이다. 그리고 공연과 모임, 특별활동의 연습장소 등 다목적 용도로 공간을 사용할 예정이다.

현재 공사가 약 30% 정도 진행되었고, 내년초에 완공될 예정이다.

북한지원사업

●온성군 23개 농장 1980정보에 비로 720톤 지원

5월 23일 한국JTS는 북한의 함경북도 온성군 인민위원회를 통하여 함경북도 온성군 23개 농장 1980 정보에 사용할 비로 720톤을(요소비로 450톤, 복합비로 270톤) 지원하였다. 보낸 비료는 온성군 전체는 1980정보에 사용될 비료이며, 5월이 넘어가면서 모내기 이전에 절실하게 비료를 원했던 북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부산에서는 한국JTS 이사장이신 법문스님과 해운대법당과 동래법당의 JTS자원활동가 약 40여명이 선전식에 참가했다.

국내소식

●정기총회



지난 6월1일 오후 2시~4시까지 강당에서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 이루어졌다.

실천사업부 유명규님의 사회로 김경희국장님의 성원보고와 안건으로는 임원, 이사장, 상임이사 선출에 대해 회원들의 동의를 얻었다. 상임이사엔 이지현님, 이사님에는 이덕아, 이기혜 그리고 감사로는 백성희님이 선출되어 단체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 정기이사회가 열리다

지난 5월16일(월) 오후 4시~6시 까지 강당에서 이 사장인신 법륜스님을 모시고 정기 이사회가 열렸다. 총 10명중 과반수 6명과 감사님2명이 참석하여 안건상정 및 심의가 있었다. 임기 만료가 되신 4명이 사임을 하시고 새로 3명이 취임되었다. 그동안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 김경희 국장 회의 차 북경에 다녀오다

지난 5월28일~31일 까지 북경에서 하는 제4회 대북협력 국제NGO 회의 차 북경에 다녀왔다.

지역 평화와 개발협력을 위한 과제(UN 기구 및 국제 NGO), 북한의 최근 인도적 상황과 기구별 지원활동 현황(한국NGO), 분과 워크숍(농업과 환경, 영양과 보건의료, 기구간 협력)에 대해 많은 토의를 했다.

● 2005년 민간단체 (NGO)의 국제협력활동 사진전



해외에서 활동하는 NGO 단체들의 국제협력사업을 홍보하고 국민들의 지지기반 구축 및 참여 증대

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사진전을 열고 있다.

우리 단체의 활동사진도 있으니 회원님들도 한 번 시간을 내서 참석 바랍니다.

*일 시 : 2005년 7월 5일~7월 12일(8일간)

*장 소 :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시 간 : 오전 9:30 ~ 오후 6:00

● 풍성초등학교 전교생 저금통 분양

5월 17일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는 풍성초등학교(교장 최광규)를 방문하여 저금통 700개를 전달하고 왔다. 동전나누기로 어려운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JTS에 감사하다며 선생님들께 적극 추천하신 열정적인 교장선생님, 그리고 교감선생님, 생활지도부장선생님께서 전교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즐거운 일이라며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방향이 끝나고 수거를 하면 풍성한 나눔의 결과를 공유할 것이다.

● 동국대부속유치원 JTS 사진전

5월 21일 경주에 위치한 동국대부속유치원(원장 이수경)에서 제2회 자비의 손길 나눔의 손잡기 행사가 열렸다. 240명 어린이들이 집에서 사용했던 물건을 내놓고 교환하거나 판매하는 바자회와 반별 자모회에서 준비해온 음식을 판매하는 장터에서 나온 수익 금액을 어려운 친구들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는 행사이다. 어린이들이 같은 또래의 친구들에게 마음을 내는 나눔의 행사에 JTS 사업을 설명하는 사진전을 할 수 있어서 풍성하게 진행되었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었다. 동국대부속유치원에서는 이렇게 따뜻한 어린이들의 마음을 담아 매달 5만원씩 후원금을 보내주고 있다.

● 한솔어린이집 감사편지 전달

5월 31일 도봉구에 위치한 한솔어린이집(원장 박소정)을 방문하여 동전모으기에 동참해준 110여명 어린이들을 만나고 왔다. 따뜻한 마음을 내준 어린이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엽서에 각각의 이름과 저금통에 들어있던 금액을 적어 전달했다. 감사편지를 만들어서 발송하고 있는 JTS

자원봉사자와 저금통을 통해 동전모으기에 동참한 어린친구들이 직접 만나는 의미있는 날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나눔의 정신을 몸에 익히게 해 주는 일환으로 어린이들을 동참하게 했다는 원장님의 밝은 얼굴처럼 한솔어린이집 전체 분위기가 참으로 밝았다.

● 전국 거리모금 정착화

5월 5일 어린이날, 8일 연등축제, 15일 초파일 등 5월 초부터 연이어 큰 모금행사를 하고 계시는 전국의 자원활동가들의 활동이 큰 활약을 벌이고 있는 요즈음이다. 150원이면 한끼를 먹일 수 있다는 일념으로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간이 날 때마다 거리로 나가 열심히 마음을 내고 있다. 인도, 북한, 아프간, 필리핀 어린이 가리지 않고 내아이를 가슴에 안듯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5월 한달동안 20,949,450원의 성금을 모았다. 전국 거리거리에서 마음을 내주시는 봉사자와 동참자, 모든 분들께 감사말씀을 전한다.

● 인현중학교 통일사랑 노트모으기



6월 3일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는 인현중학교(교장 한창석)에 통일체험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날 등교 시 교문에서 진행된 노트모으기 행사를 통하여 모아진 439권의 노트와 3자루의 연필이 JTS에 전달되었다. 1인당 2권의 노트를 북한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진행된 행사이다. 노트를 가지고 오지 못한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모금을 해주었다. 1교시에는 '북한동포가 들려주는

북한생활이야기'는 질의응답 식으로 진행하였다. 일상생활 속에서 궁금했던 여러 가지 북한관련 이야기들을 학생들이 질문을 하였고, 북한동포의 경험으로 답을 듣는 진솔한 이야기 나눔의 자리가 되었다. 또한 통일을 향한 마음을 구기대회와 알뜰매장까지 연결해서 진행하였다.

이날 모아진 통일성금 423,040원과 알뜰매장 수익금 508,180원을 합한 금액 총 931,220원은 선봉지역 선봉아동병원어린이 15명에게 1년간 영양식 제공으로 쓰여진다. 통일성금에는 학생회장단 부모님들의 성금 2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린다. 선생님들과 학생, 부모님들이 함께 한 인현중 통일체험의 날을 JTS와 함께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 희양초등학교 분교 어린이에게 급식 제공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1리에 있는 희양초등학교 분교에 다니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5명에게, 160일 동안 하루 한 끼 급식비 비용 1,320,000원을 교장 선생님을 통해 전달했다.

| 물품후원 |



2005년 4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1. 금송산업주식회사 긴팔면티 331장
2. 미륵사 양말 16장 등 생필품 1박스
3. 김정희 부루펜시럽, 후시딘, 마데카솔, 콜디 등 종합의약품 5박스
4. 무주상 창반바지 42장
5. 인현중학교 통일체험의날 노트439권 연필3자루
6. 문문사사교반 런닝 11장

라진·원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5년 6월 15일 현재



라진·선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5년 6월 15일 현재



* 회색으로 표시된 곳은 현재 지정기탁자가 없는 곳입니다. 위의 유치원·탁아소에 지정해서 후원해 주실 분은 연락주세요.

통일돼지저금통 후원금 현황

2005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광주

김창수 31,060 빅마트두암점 13,320 빅마트두암점 9,530 엄창수 27,420 엘로우샵(서예랑) 35,270 이선주 24,680 이선희 8,750 정상일 3,060 한겨레21광주지사 39,040

▶ 대구

고광훈 33,080 김동철 40,950 김향숙 13,920 무명 5,590 무명 5,390 무명 26,270 문영순 16,140 박정선 22,300 손경숙 18,000 손경희 56,190 수진 9,000 안병걸 28,190 안춘옥 142,280 이세미 35,400 이순옥 56,080 이영주 64,270 이재용 13,400 이정환 56,680 장금옥 15,390 장선옥 24,000 전병찬 26,310 청안사 42,000 청안사 26,400 청안사김창석 25,300 청안사이재림 24,560 청안사이재용 19,840 청안사장병호 18,000 청안사장수진 25,500 최창주 22,680

▶ 대전

갈매기해물탕 18,760 광영술 49,310 권용애 31,040 길순용 30,660 김남식 27,610 김범준 10,600 김세영 16,750 김영태 6,860 김용근 2,110 김정숙 16,910 김정환 25,020 김종복 17,840 무명 24,610 무명 30,230 무명 27,150 무명 820 무명 2,700 무명 6,390 무명 3,160 무명 4,000 무명 3,020 서춘자 25,300 성남숙 19,030 신광호 41,130 신은정 28,170 실비식당 2,830 유기숙 13,710 유인자 29,940 이귀용 22,380 이성한 10,990 이정미미용실 9,570 정교순 18,980 정성목 18,950 중앙불교사 7,400 지မ်클럽(중리점) 26,480 한형인 37,000 황영수 105,000

▶ 동래

강민정 13,900 김은택 19,060 김정선 6,480 나영 10,550 류정은 33,100 무명 25,090 무명 22,980 무명 4,940 무명 12,150 무명 34,000 무명 110,820 무명 22,320 무명 27,310 무명 44,360 무명 10,820 박갑준 6,990 박귀련 19,440 법문주 151,510 법문주 68,320 법문주 110,800 법문주 77,400 선주향 9,160 송영주 5,580 안성삼 21,560 안성삼 21,420 오준석,윤석 21,390 이은경 11,860 이종철 33,080 이창호 26,130 조형준 28,430 진인배 13,870 차홍선 23,300 최광수 43,710 최광수 55,600 최성희 14,410 허성호 156,930 황동희 7,740 황동희 8,590 황선미 23,240 황주성 24,400 황주성 2,440

▶ 마산

강지윤 12,770 김길자 9,460 마여교 16,930 무명 19,500 무명 2,870 무명 4,790 박명희 66,100 박오복 6,510 송중환 13,240 양수용 23,460 외동초구동민 13,340 이환철 6,020 임성은 12,100 진미애 8,140 진영생 15,060 진현우 12,200 홍수진 23,810

▶ 서울

(주)경주귀빈여행사 6,000 갈현초6-4 15,660 갈현초6-4 11,630 강금실 50 강승욱,한춘실 2,150 고광훈 33,080 공덕품 7,060 광복준 26,320 구연련 23,200 김경섭 16,300 김경숙 3,000 김경희 10,000 김기숙 26,780 김나영 10,200 김도연 11,420 김명숙 7,580 김명옥 1,500 김명옥,류애령,안국화 13,390 김명희 1,450 김민애 30,000 김민영 1,050 김성권 15,660 김순기 7,580 김애자 14,350 김옥금 1,590 김옥남 1,200 김옥분 14,990 김옥선 2,900 김옥렬,김정희 2,990 김재길 22,110 김정옥 4,700 김정표 220,080 김종현 22,680 김진철 11,910 김창란 7,630 김창숙 100,040 김철웅,윤춘복 3,000 김형상 2,470 김형진 39,030 김혜경 2,060 김혜숙 10,150 남동우 25,110 류규희 7,460 류연철 7,200 맹명화 400 무명 9,880 무명 24,040 무명 13,010 무명 3,000 무명 5,650 무명 21,530 무명 3,200 무명 1,000 무명 1,000 무명 400 무명 500 무명 1,000 무명 66,870 무명 2,000 무명 1,500 무명 800 무명 600 무명 5,310 무명 7,380 무명 2,430 무명 34,840 무명 23,040 무명 8,120 무명 13,900 무명 34,120 무명 22,990 무명 48,750 무명 36,750 무명 8,480 무명 10,730 무명(분당69기) 1,430 무명(분당69기) 2,150 무명(분당69기) 940 무명(분당69기) 1,290 무명(분당69기) 1,090 무명(분당69기) 3,030 무명(분당69기) 1,510 무명(분당69기) 1,970 무명(분당69기) 2,880 무명(분당69기) 1,500 무명(분당69기) 1,000 무명(분당69기) 1,900 무명(분당69기) 1,450 무명(분당69기) 1,270 무명(분당69기) 1,620 박광익 23,770 박길남 1,200 박영숙 50,110 박용근 40,100 박은선 24,370 박정향 15,880 박종서 24,220 박충

통일돼지저금통 후원금 현황

2005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 2,510 박해상 24,010 백선기 23,800 변역25 11,940 보리원 20,600 성덕사 41,120 송성희 44,700
 승진산업 22,290 신동현 8,030 신성숙 20,630 신호성 10,740 심연옥 15,920 양광용 21,250 양신자
 34,710 양정순 1,720 양춘실 1,000 여현주 30,960 염지민 33,830 염지원 34,750 오상광 14,870 오
 상광 47,060 오영옥 1,000 용문사 49,990 우연 16,390 유연희 2,150 유명진 28,280 유현옥 180 유
 호광 800 유호준 1,800 윤정희 24,270 윤효남 15,190 이경희 15,210 이경희 17,350 이광범 2,100 이
 금숙 2,000 이보경 23,630 이보경 21,550 이상임 31,220 이유킨 12,770 이윤화 7,750 이정화
 26,500 이진옥 2,600 이현구 281,314 이현정 26,300 이홍철 1,850 이화정 60,000 장성호 31,160 장
 은희 700 전경희, 김송이 2,940 전광철 1,200 전성지 29,100 정명숙 31,530 정명숙 8,700 정문중
 10,760 정성권 17,220 정원중 18,200 정은진 6,970 정은진 7,050 정현석 4,140 정희경 1,440 정희영
 17,770 조성은 17,420 종범 11,420 진성일 54,760 진여심 5,200 최대원심 33,140 최대원심 50,650
 최수경 10,110 최은석 30,750 최정연 23,690 한국선 1,300 한은희 5,060 허경숙 500 홍유식 6,770
 황경숙 3,050 황지나 20,000

● 울산

김고는 13,060 김일운 21,390 무명 222,230 무명 23,630 박기태 19,350 박현성 18,540 반정운 12,260
 신미정 37,370 안수용 47,980 이경선 19,080 이상용 20,070 무명 20,090 정영미 24,220 참글학자
 10,350 최성욱 10,370 최원지 21,360 허영숙 8,290

● 제주

강상희 23,250 임효진 23,460

● 청주

권소희 10,670 김나영 28,060 김영국 21,850 김지혜 13,430 류동연 48,650 민응기 27,060 박진옥
 17,670 실상화 29,450 양춘순 27,270 영운동민일동 56,800 정진혁 29,420 정진홍 23,670 최수자
 52,340 최용석 30,800

● 해운대

강도원 4,880 강보민 4,080 강소담 22,410 금수성 18,790 김미애 11,750 김수연 17,600 김영화 10,430
 김인만 40,100 김재옥 16,270 김효미 19,180 무명 32,510 무명 20,440 무명 3,880 무명 21,540 무명
 4,600 무명 18,180 무명 12,930 무명 6,930 무명 11,000 무명 3,560 무명 8,960 무명 25,940 무명
 17,810 무명 16,710 무명 25,110 무명 8,260 무명 29,710 무명 12,240 무명 12,790 무명 21,400 무명
 3,920 무명 23,980 민경수 15,850 배정숙 23,810 성종호 37,540 성지는 6,930 유상용 20,500 이경훈
 21,590 이수진 20,390 이윤창 9,260 이정숙 14,620 이진옥 77,370 장수연 23,320 장현식 16,770 정란
 진 13,600 정연이 21,980 정윤성 5,690 정윤희 5,750 정혜경 22,050 조광수 19,800 최문숙 64,250 추
 현재 12,170 향나무집 23,320

북한어린이를 위해 통일돼지저금통에 사랑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2005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거리모금 현황

광주 1,037,710 대구 3,778,800 대전 1,392,490 동래 1,046,790 마산 4,120,100
 서울 7,899,207 울산 639,030 청주 1,522,240 해운대 1,673,690

신규회원(개인,단체)명단

2005년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인도 어린이 결연

P0002449	구 지 은	P0013180	홍 석 훈	P0012697	홍 진 속
P0003790	양 혜 경	P0013468	우 혜 진	P0012702	이 태 호
P0005104	정은숙	P0013560	감 용 래	P0013066	김 형 석
P0008997	박재식	P0013585	김 지 현	P0013068	김 태 한
P0009136	이 현 택	P0013587	감 홍 래	P0013167	정 문 종
P0010917	문재윤	P0013684	황 수 선	P0013170	정 원 종
P0011150	김경순	P0013842	김 영 길	P0013181	이 상 학
P0011775	하애란	P0013898	김 진 근	P0013822	이 중 서
P0012496	조진한	P0013909	서 재 표	P0013823	이 예 립
P0012509	남애리	P0013911	배 기 정	P0013837	류 임 속
P0012510	신인균	P0013980	이 광 남	P0013907	장 운 석
P0012689	김혜인			P0013912	표 민 수
P0012746	정혜선			P0013980	이 광 남
P0012874	최백순				
P0012876	김태원				
P0013066	김형석				

결핵퇴치 후원금

P0012719	한 혜 영
P0013895	송 미 영
P0013897	김 경 속
P0013912	표 민 수

아프간 후원금

P0010116	이 덕 기
----------	-------

북한 어린이 결연

P0000604	김 도 현
P0012677	하 응 지
P0012692	최 애 리
P0012694	정 성 철

북한개발후원금

P0013605	정 술 이
----------	-------

특별 후원금

2005년 3월 16일 부터 4월 30일까지

박영술 1,000,000원	김태숙 캐나다\$1,000	유병욱 100,000원	이태호 1,000,000원	최백순 1,000,000원
김영길 50,000원	대도회 2,000,000원	윤형문 1,000,000원	장성호 100,000원	
김지현 50,000원	덕장스님 1,000,000원	이기수 50,000원	정석미 3,000,000원	
김태원 1,000,000원	양혜경 60,000원	이엽 150,000원	청안사 3,000,000원	

*후원회원 가입신청을 하신 분들 중 첫 후원금을 내신 분들에 한하여 신규회원명단에 등록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새로운 회원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4월 30일까지 접수된 명단만을 올리게 되었음을 양해바랍니다.

JTS 회원국에서 알려드립니다

● 회원관리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JTS 회원국에서는 6월부터 회원들에게 보나나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회원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시스템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다소 불편하신 점이 있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아울러 후원번호가 새롭게 부여됨에 따라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거나, 이름, 주소가 잘못 기재되었으면 전화나 E-mail을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소득공제 영수증 발급 관련

2005년부터 연말소득공제영수증 발급시 후원회원 명의로만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혹시 아직 후원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분들은 변경후원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후원국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전화. 02-587-8995 / E-Mail. jtsmember@jts.or.kr